

마음이 청정하면 천지가 기쁨에

불교조계종 종정 혜인 스님



마음이 청정하면 천지가 기쁨에 넘친다. 계절이 청정하니 가사 한 벌이면 족하구나. 존경하는 세계인 여러분 2016년은 여러분 가정마다 육근청정(六根淸淨)하시고 복덕구족(福德具足)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2016년 새해는 부모행제가 만나니 한국의 국운이 융창하고 남북이 화합하는 행복의 해입니다. 계절이 청정하니 우주가 성 주 괴 공 속에 티끌과 같습니다. 세계 4대 강과 한강에도 동년해가 비추니 자유롭고 평화로워 천지가 기쁨에 넘칩니다.

서로 우러러 보는 불제자 되자

국제선불교조계종 종정 대승정 목탁 스님



병신년 새해 지구촌 구석구석 부처님의 자비광명의 빛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종교는 절이나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것만이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내가 몰랐던 사실을 깨닫고 지금까지 생활했던 것을 새롭게 바꾸자는 의지가 숨어 있는 것이 종교이고 가슴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신앙이어야 합니다. 승려의 향기를 갖춘 수행자가 되듯이 그런 수행자들만이 중생을 아우를 수가 있을 겁니다.

약자와 함께 하는 삶을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



모든 갈등과 분쟁은 인간의 끝없는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의 결과는 파탄과 절망만을 남겨놓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평화와 화합의 공동체 사회를 구현해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화합과 평화는 약자에 대한 배려와 상대에 대한 존중이 발휘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우대하고 배려하는 실질적인 정책이 올해에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병신년을 아름답게 장엄해보길 기원합니다.

상생의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도선 스님



병신년(丙申年)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종교 간의 갈등으로 남북 간의 대립으로 많은 중생이 고통 받는 오늘이지만 등골고 모가 남아 없이 원만성상으로 밝게 세상을 비추는 병신년의 저 태양처럼 온 누리 온 중생에게 밝고 맑은 불법의 광명이 두루 비추어 화합과 상생의 대도를 열어 나가는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합장 축원 드립니다. 덕의 향기는 날로 더해 밀로 모든 중생의 고통을 건지소서.

물은 깊을수록 푸름이 더 짙다

대한불교불입종 종정 면철 스님



산은 높을수록 정기가 넘치고 물은 깊을수록 푸름이 더 짙나니 사람은 어이하여 침묵을 있고 아우성만 치는가! 세찬바람 맞으며 울부짖는 사연들이 한시도 그칠 날이 없는 세상에서 오직 부처님의 진리만이 중생들의 약이 되어 빛나는 또 한해를 맞이하는구나 이제 병신년에는 부처님의 지견(知見)을 열어서 중생의 삶을 부처님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모두가 두 손 모아 합장 발원합니다.

마음 한번 바꾸면 인생이 바껴

(사)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스님



오지 않는 것을 가지려 얼마나 상심했던가. 버려야 할 것을 붙들고 얼마나 상심했던가. 시작도 끝도 없이 흐르는 세월 또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습니다. 온갖 잡념은 탐욕에서 생겨나니 마음 한번 바꾸면 인생이 바뀌네. 어제도 오늘도 먹고, 입고, 자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만든 것이 얼마나 되던가. 오늘도 남의 신세만 지고 산다네. 새해에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여 자비를 베풀면서 음덕을 쌓고 다시 되돌아오지 않을 내 생애에 보람된 한해가 됩니다.

불법문중에는 문이 따로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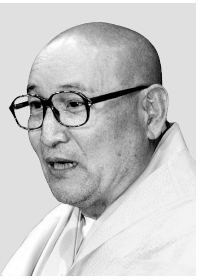
(사)대한불교선교종 종정 법운 스님



큰 원을 세워서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모조리 소멸하고 행복할 수 있는 세상 되기를 발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진리를 깨닫도록 하는 가르침입니다. 참생명 사랑, 평등, 공동체 건설이지요. 바로 불국정토건설입니다. 불법문중에는 문이 따로 없습니다. 서있는 그 자리 그 곳이 그대로 진여무위묘요, 가는 곳이 그대로 열반로입니다.

부처님 지혜로 한해를 빛내자

대한불교본조계종 종정 회암 스님



一日行善이면 福雖未至하나 禍自遠矣. 一日行惡이면 福雖未至하나 禍自遠矣. 行善之人은 如春園之草하여 不見其長이라도 日有所增하고 行惡之人은 如刀之石하여 不見其損이라도 日有所虧니라. 하루 동안 착한 일을 한다고 바로 복을 받는 것은 아니니 악한 재앙은 멀어진다. 반대로 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바로 불행이 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봄의 풀과 같이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복은 날마다 쌓여간다.

불법의 빼어난 자취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혜승 스님



靈鷲山色玉屑屑 奇賞平生恨未會 佛法逸翺今何在 峰巒溪壑問不 w 청정한 하늘 가운데 밝게 빛나는 불법의 대의를 찬나기간에 풀어헤치는 뜻을 장부들은 알아차려야 합니다. 육바라밀도 좋고 팔정도도 좋고 늘 한마음 한뜻으로 지키고 세우면 산은 침묵하는 가운데 웃고 시냇물은 흘러 가운데 영롱한 진주빛 그대로입니다.

갈등 없는 평화의 한해가 되길

(사)대승불교본원종 종정 대화 스님



다사다난 했던 한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 같이 밝은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받들어 실천함으로써 남북을 비롯하여 온 세계가 갈등과 전쟁이 없는 평화롭고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합니다.

교만은 티끌 속에 묻히고

(사)대한불교해동종 종정 혜봉 스님



驕慢塵中藏般若 我人山上長無明 輕他不學彌腫老 病臥呻吟恨不窮 교만은 티끌 속에 묻히고, 내다 너다하는 상위에는 무명만 자라도다. 남을 없이 여기고 배우지 않아 늘어서 기력이 없어. 병석에서 신음하며 한탄만 하고 있네.

우주 법연의 주인공이 되자

(사)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회장 송산 스님



병신년 새해가 밝아 부처님의 지혜와 향기가 온 누리에 가득합니다. 자연은 언제나 무정설법으로 부처님의 찬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나간 힘든 일은 모두 잊고 희망의 마음으로 하나로 나아갑시다. 화합의 마음으로 함께 할 때 조화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부처삼아 열심히 정진한다면 우주 법연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새해 밝은 마음으로 바르게 믿고 다함께 정진합니다.

초발심의 마음을 이어가

(사)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



새해를 맞아 불자님들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초발심과 이 마음이 이어져 결과를 얻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마음 중에 처음 마음 내는 것이 더 어렵기에 초발심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처음 마음내면 반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새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마음을 내는 것과 아무생각 없이 새해를 맞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목표가 있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이지만 아무 목적도 없는 곳에는 결과도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향기 없는 꽃

(사)대한불교삼보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법장 스님



若人無信心 如乘無主船 믿음 없는 사람은 향기 없는 꽃과 같고 사공 없는 배를 타고 넓은 바다를 건너는 것 같으니 병신년 한해에는 불문에 인연 맺은 사회대중, 모든 사람과 불자가정에 만례만복하시길 축원 올립니다.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비로자나불 법신주 음 아비라 흠삼 스바하.

마음을 굴러 너덕해지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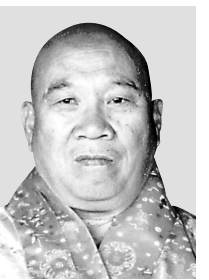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현불 스님



外離諸相 內無妄念 心如日輪 遍照十方 밖으로는 모든 모습을 떨쳐 내고 안으로는 망령된 생각이 없다면 마음은 해 바퀴와 같아서 사방 세계를 두루 비추리라 내 안으로 마음을 굴리고 굴려서 불성을 찾으신다면, 온 우주 사방세계에 너덕한 마음이 가득 찰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취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중생이 아프면 불보살도 아프다

현대불교조계종 종정 벽운 스님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중생의 고통 정신과 육신의 병고로 인하여 더 많은 더 큰 자비심으로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불보살님이 편지 못하십니다. 참고 감당해야 되는 세계에서 무진장한 중생에게 하나의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무진등이 되어 평화인락의 시대, 불자가 됩니다. 대한민국 평화와 통일의 시대에 도움이 되고, 고통 받는 생명들에게 무진등이 되어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우리는 보살입니다.

참으로 참회의 수행을

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유심 스님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마음에 죄의 인연 없애려 하면 성품 가운데 참으로 참회하시길 바랍니다. 배움에 항상 자성관 하면 즉시에 부처님과 한 무리되리니, 앞으로 법신을 찾고자 하면 모든 법상을 떠나서 마음 씻어야 합니다. 노력하고 살피며 노닐지 말아야 합니다. 뒤 생각 끊어지면 한 세상 설 티내데 이 계승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돈오할 것입니다.

차별 없는 일미를 이롭시다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취운 스님



하늘에서는 진리의 우레가 일어나고 온 우주에 가득한 장애(障礙)가 사라집니다. 곳곳에서 등갈게 화합하니 통합의 길이 열리고 우리 모두 차별 없는 일미를 이루고 번뇌(煩惱)속에서 범부는 부처를 만나고 고난 속에서 비로소 마음의 안식을 찾게 됩니다. 자신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누구도 진리를 벗어날 수 없고 만법 속에서 상생의 화합으로 불국정토로 만들어 갑시다.

영겁결에 세월만 보내지 말라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정광 스님



大丈夫休擬議 豈爲虛名減身計 百年隨分覺無多 莫被光陰暗添歲 대장부여 이리저리 따지지 말고 어떻게 헛된 명리로 하여 출가의 본 뜻 없애리오. 백년 동안 능력껏 수행하여도 깨달음은 적으니 아둔하니 영겁결에 세월만 보내지 말라

소통으로 순탄한 한해 되길

(사)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운남 스님



새로이 솟아오르는 태양은 모든 이들과 갈등과 경쟁심을 멈추고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며 노력하는 것 마다 순탄하여 즐거움만 넘쳐나서 병신년이 넉넉하고 살기 좋은 밝은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지나면 여명의 아침이 밝아 오듯이 고통과 어려움도 찬란한 아침 햇빛 속에 자취를 감춥니다. 병신년 새해 불보살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충만 할 것을 기원합니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

번뇌, 망상 끊고 보살이 되자

(사)대한불교승가회 이사장 무공 스님



불교의 진리는 제3의 어떤 타자에 의한 성불이 아니요, 오직 인간의 내재적 자아의 각성에 의한 해탈과 열반이다. 열반이란 번뇌와 집착을 끊음이다. 다른 사람이 번뇌를 끊어주는 것이 아니요, 바로 나 자신이 번뇌를 끊어주는 것이다. 보살은 바로 이것을 알고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이다. 열반은 대성도(大成道)며 성도는 해탈인 것이다. 새해부터는 스스로의 자성을 밝히는 노력을 다하여 해탈의 경지에서 번뇌와 망상과 집착을 떨치고 상구보리 하화중생에 정진하자.

진공묘유의 진리를 깨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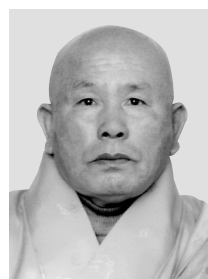
(사)한국불교종단연합회 회장 성철 스님



자기의 한마음을 지키는 것이 사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 보다 낫고, 부처님만 생각하면 생사를 면하지 못하는 법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염불하여 극락세계에 나고자 하지만 깨친 사람은 그 마음을 스스로 깨끗이 할 뿐이다. 중생이 마음을 깨쳐 스스로 건지는 것이지만 부처님이 중생을 건져주는 것은 아니다. 한마음 밝게 가지면 세계 일화가 만발하여 정토의 길이 열리고 지구촌 중생이 너와 내가 차별 없이 하나 되는 해탈의 평화세계가 구현이 되는 것이다.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살자

(재)대한불교일통선교종 종정 지공 스님



부처님께서 “일체가 유심조”라고 하신 것은 즉 마음속에 나쁜일을 생각하면, 그 행동들이 나쁘게 나타나서 마치 그림자가 그 형상을 따르듯이 그 나쁜 과보로 인하여 고통이 생기고 마음속으로 착한 일을 생각하면 그 행동이 착하게 나타나서 마치 수레바퀴가 그 자국을 따라가듯 그 착한 과보로 인하여 기쁜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복된 씨앗을 심어 열심히 가꾸어 공덕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 합시다.

참다운 나를 찾아보자

대한불교조동종 종정 심월 스님



有一物於此하니 縱本以來로 昭昭靈靈하여 不增生不增減이요, 名不得相不得이로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아십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기 전에 나는 나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자 을 한해는 열심히 수행 정진하여 해탈성불 합시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집착말자

세계승가회 회장 수완나 스님

賢夫染人이든
如近香熏이라.



사람이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것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마음을 두기 때문이요, 사람이 마음과 원망이 생기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일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집착하지 않고 오로지 오늘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를 들여다봅니다. 언제나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아는 사람에게는 좋은 향기가 납니다.

집착과 아집을 버리면 해탈

(사)대한불교염불종 종정 성인 스님



병신년 새해에 우리불자들은 동체대비심의 사상을 되새기며 모두가 화합하여 공생공존의 자비심을 오직 일념으로 생활과 실천으로 정진합시다. 마음속의 집착에서 떠나면 내 마음은 더욱 편안해 질 수 있습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이 자신의 잘못된 아집과 집착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해탈의 지름길입니다. 부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정진 또 정진하는 한해가 됩시다.

중생의 상에서 벗어나자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해봉 스님



불자 여러분, 병신년 새해에는 육근청정하시고 복덕구족하시길 빌며 가정의 화목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리하며 앞으로 갑시다. 불자들이여 매사에 바로보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말하고,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정진과 바른 법 잊지 않고 부처님 법을 생활화 한다면 바로 중생의 상(像)에서 벗어난 부처님 상이 될 것이니 불화와 다툼이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시작이 반, 성불도 지금부터

대한불교대원종 종정 신평 스님



법상에 올라 주장자 세 번 치시고 병신년 신년을 맞이하여 우리불자님 가정과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부처님의 해명과 함께 모두 성취되시길 소구 소원하는 날입니다. 發心畢竟이 不滅 如是 二心先心 難 이로다. 나무아미타불. 항상 신년이 되면 누구나 큰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나 작심삼일이라고 사흘이 되지 않아 접어버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불심을 여는 불자로 부처님 곁에서 안주하는 신도로 제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았습니까? 모두 성불하세요.

마음이 극락이면 미래도 극락

대한불교법상종 총무원장 해월 스님



작년 한 해는 정치와 안보, 경제, 종교 등 모든 면에서 유독 대립과 갈등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지나간 모든 어려움은 아만과 편견 대립에서 출발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동체대비심이 간절히 한 해였다는 것입니다. 병신년 새해는 우리 모두가 공생공존의 부처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서로 화합하고 다투며 불국정토를 이루기 위해 전력을 다합니다.

불법 배움 게을리 하겠는가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정 능인 스님



새벽녘 떠오르는 붉은 태양과 같이 밝아지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세상사 가만히 앉아서 이를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법에 의하여 돌아가는 것입니다. 공부를 통하여 도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하려는 마음가짐과 노력이 있어야 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 배움을 게을리 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정진합시다.

마음의 거울 속 때를 닦자

대한불교일승종 종정 혜정 스님



올해 한해는 있는 그대로 충실한 삶을 살아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살아 보셨습니까? 모든 법을 설하여 주셨습니다. 삶의 장은 그대로 살아 숨 쉬는 경전입니다. 생활 속을 떠난 진리가 어디에 존재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팔만대장경 설법도 이 삶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삶이 있는 나의 세계 속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번뇌가 일고 진정한 자기를 볼 수 없습니다.

미래 사람에게 환경을 물려주자

(사)대한불교삼계종 총무원장 일초 스님



과거와 현재 역사를 보면 귀천의 신분을 떠나 수많은 이들이 투쟁과 민중봉기 등을 통해 본인들의 뜻을 세상에 외친 소리를 하나로 규합해보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 공유하며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외침은 과거, 현재 또한 미래에도 같을 것이라 본다. 오묘하게는 아름다운 세상이 부처님 가르침이 이루어지길 병신년 새해 두 손 모아 발원해 봅니다.

마음 법으로 세계를 보아야

(사)대한불교금강종 종정 무학 스님



不應住色生心 不應住聲香味觸法生心 應無所住 以生其心. 금강경에서 이르길 '응당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응당 성향미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 것이며, 응당 머문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고 하였습니다.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들은 보이고 듣는 것만이 진리요 행복이라 착각하고 삽니다. 마음에서 생긴 문제는 마음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인연따라 왔다 인연 따라가니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



隨緣來隨緣法하니 明月照清風拂이로다. 春來依舊 草自靑하고 修心布德賢善交하여 淸澄四海萬人樂이며 悉顯成就多福年되소서.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가니, 밝은 달은 비추고 맑은 바람은 펼쳐도다. 봄이 오면 옛을 의지해서 풀이 스스로 푸르도다. 원하는바 모두 이루어 행복한 병신년 한해가 되소서.

모든 생명들이 나 아님 없다

세계불교조계종 종정 자현 스님



언었다 한들 원래 있던 것 잃었다 한들 원래 없던 것.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 것도 가져오지 않고 인연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러한 만고의 진리를 망각하고 삼독심에 물들어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얻어도 그 자리요, 잃어도 그 자리일 뿐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 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삼독심을 내려놓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생을 가꾸기를 기원 드립니다.

마음이 맑으면 혼란도 사라져

(사)대한불교원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



다사다난했던 2015년을 마무리하고 2016년 병신년 희망찬 햇살이 온 누리에 퍼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삼독심으로 인한 것이거늘, 하늘이 맑고 땅 위에 물이 맑으면 대지가 풍성하고 윤택해 지듯 우리들의 마음이 맑으면 세상의 혼란도 차츰 사라질 것입니다. 중생은 마음속의 자비심을 일깨워 진여심을 찾아내고 새해 날마다 아침을 맞이함이 좋은 나날이 되기를.

이웃과 사회가 모두 극락이요

한국불교원종교단 개산대법주 마정 스님



병신년을 맞이하는 불자들과 모든 이들에게 희망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작금의 세계는 도처에서 살생의 포화가 멈추지 않고 전쟁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국민들은 평등한 권리와 인권을 찾고자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깨닫고 보면 일일시호일이요, 날마다 좋은 날이지만 권력과 부귀와 입신출세만을 쫓는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끝은 암울하게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아파하는 불자되자

(사)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월인 스님



병신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날과 날이 이어지는 것 뿐 인데도 우리는 썸의 기준을 만들고 새해니 묵은해니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매일 매일이 새날이요 매일 매일이 묵은 날인 것을 어디에 새해 한 해가 있겠습니까? 잘 살아 봅시다. 모두가 하나 되어 행복해 집시다. 서로를 돌러 보고 보듬어 함께 잘 살아 봅시다. 같이 힘들고 같이 아파하는 열린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미소 짓는 불자가 됩시다.

보리심을 깨달아야

해동불교임제조계종 총무원장 동진 스님



병신년 새해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본래가 무시무종(無始無終)이라 새해라고 다를 바 없으나 맑은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새 날 새 아침에 내 삶을 맑고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시다. 몸으로는 진실한 행을 실천하고 입으로는 진리만을 전하고 마음으로는 부처님의 보리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언제나 온화하고 순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오물은 건드릴수록 악취가 난다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종정 연화 스님



出出年年是好年 箇箇日日是好日 人生百年是好日 新年日日大吉祥. 세상에 나와 보니 해마다 좋은 해요, 날마다 좋은 날이로다. 인생백년 한평생이 즐겁고 즐겁거늘, 신년에도 날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상생 덕목 키워, 평화 사회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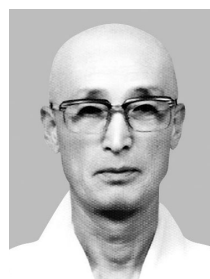
대한불교 화엄종 총무원장 화음 스님



맑고 밝은 우리의 마음속에 붉은 해가 높이 떠올라 삼라만상을 밝게 비춥니다. 새해에는 평화와 자유로운 세상이 열려, 모두가 따스롭고 희망에 찬 삶을 영위하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이 충만할 것입니다. 과거 성현들의 말씀에 너무 집착하여 버리지 못하면 분마음이 이보다 더 큰 병폐가 없으며, 장애가 생겨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버려야 할 것이 집착입니다.

계정해 삼학을 닦자

한국불교여래종 종정 인왕 스님



병신년 새해에도 선행을 닦고 모든 악행 또한 짓지 않겠사오니 원컨대 이 청정한 마음이 항상 심방세계를 두루 비추시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행복의 길이 열리기를 염원합니다. 불자 여러분, 새해에는 육근청정하시고 복덕구족하시길 빌며 가정의 화목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일체 중생이 성불하는 힘을 모아 고뇌와 중생의 미혹함과 중생의 화난을 없애고 편안함을 얻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계정해 삼학을 닦아서 정각을 성취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불교 인과법을 바르게 실천하길

(사)대한불교율사조계종 총무원장 청파 스님



병신년 새해 새날 한마음으로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지은 것은 지은대로 받는 불교의 인과법을 알고 바르게 실천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거를 원망하고 남 탓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부처님의 참뜻을 항상 생각하며 슬기롭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와 신념의 생활을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참 나는 내 안에 항상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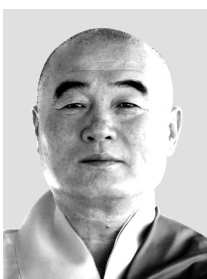
대한불교선종 총무원장 정관 스님



새해 원승이해를 맞아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원승이가 날뛰는 것과 같이, 사람의 마음도 번뇌로 날뛰고 있습니다. 정말 잠시도 쉬지 않고 말합니다. 사람은 몇 초에 한 번씩 생각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러한 번뇌는 진정한 내가 아닌 가짜가 진짜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참 나는 내 안에 항상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참 나이지 돌아다니는 차가 참 나 아닙니다. 흐린 이런 물 같은 마음을 닦기 위해서 선정 공부가 최선입니다.

천지만물이 모두 인과의 법칙

(사)한국불교종단연합회 고문 무산 스님



천지만물이 모두 인과의 이치에 있고, 자리에 앉으면 일어설 것이며 앉으면 누울 것이고 누우면 반드시 일어설 것이며, 앉으면 누울 것이고 누우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니 이것이 곧 인과의 이치다. 법이란 마음과 경계를 모두 잊어버려야 참 법이며 구함이 없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집착이 없으면 마음이 멀어지지 않을 것이며 생명이 없는 것이 바로 부처인 것이다. 생(生)한 바가 있으면 멸(滅)할 바가 있고 생한 바가 없으면 멸할 바도 없다.

불교 깨달음이 사회적 해탈

(사)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불교의 깨달음이 사회적 해탈이다. 현대는 산업사회다. 또는 정보화, 디지털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통상의 발달에 따라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한동네의 일일으로서 지구촌이라는 글로벌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물질 지상주의, 배금주의, 자동화 숭배주의로 사회가 변화되어 인간은 본성을 상실하고 허공중에 방방 도는 팔랑 개비 신세가 되고 있다. 불교는 구원이 아니라 해탈이다. 번뇌와 망상으로 구속되어있는 것을 본래 자리로 돌리자.

행을 통한 수행을 하여야

(사)임제불교조계종 종정 지암 스님



새해 온 누리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함께하여 지이다. 우리들은 진리를 가짜로 탐욕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바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물질적인 가짜에 모든 것을 쏟아 붓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조차도 참나가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전도된 사실을 설하시어 진정한 나의 불성을 찾으려 하셨습니다. 새해에는 말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을 통한 수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부처님 시봉을 내 생명처럼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 복지재단 윤기순 이사장



부처님의 은혜는 하늘이며, 천지대자연의 도(道)다. 이러한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중생이요, 이 은혜를 알고 믿어 시봉하는 사람은 보살이다. 보살은 설 틀이 없다. 높아야 하고 깊어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맑고 깨끗하고 밝게 해야 한다. 그러기에 보살은 차별이 없다. 어째서 '너'와 '나'의 차별이 있겠는가, 너와 나의 차별이 없다면 승자도 패자도 없다. 이제 불자도 내외가 하나가 되고 부처님을 모시고 그 뜻을 심부름하는 보살로 거듭나야 한다.